

# 糖尿病에 관한 醫史學的研究

—특히 우리나라 古典醫書에 記載된 바를 中心으로—

## Medico-Historical Study on Diabetes Mellitus

—Based Particularly on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s on Medicine—

서울대학교 醫科大學 醫史學敎室

李 英 澤

### 1. 緒 論

糖尿病의 研究는 20世紀에 들어와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 特히 Banting의 insulin 發見은 糖尿病 治療에 대한 關心을 한층 높였으며, 生化學 分野의 눈부신 發展은 糖尿病의 原因 파악에 박차를 加했다. 이에 따라 數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糖尿病의 臨床 및 實驗의 研究業績이 報告 되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著者が 알기에는 糖尿病에 관한 醫史學의 研究는 찾아 보기 힘들며, 特히 우리 나라 固有 醫書를 통한 이 方面의 研究는 극히 稀少하다.

現存하는 우리나라 固有醫書 가운데 가장 오랜 것은 鄉藥救急方인데 高麗 高宗時인 13世紀 中葉에 大藏都監 刊行으로 初版이 나왔을 것으로 推測 되나 이미 亡失 된 지 오래며<sup>1)</sup> 現存本으로는 지금 日本 宮内省圖書寮에 있는 것이 唯一한 것인데 이것은 1417年(李朝 太宗 17年)에 慶尙道 義興에서 重刊된 것으로 여기에 消渴에 관한 記錄이 있다.

즉 「消渴卒小便大數, 非淋令人瘦」이라고 하여 消渴의 증상을 말했으며 이에 계속하여 여러가지 治療법이 열거되어 있다. 「卒小便大數」는 多尿를 意味하며 「令人瘦」는 심한 體重減少를 말한다. 그리고 「消渴」이란 말 自體는 심한 渴症을 뜻한다. 이로 미루어 消渴이 오늘날의 糖尿病을 聯想시켜 주는 것임을 알수 있으나 糖尿病이라 단정 짓기는 곤란 하다<sup>2)</sup>.

그러나 1433年(世宗 15年)에 完成된 鄉藥集成方은 救急方을 위시한 高麗固有의 醫書와 宋의 太平聖惠方을 包含한 여러 中國醫書를 引用하여 만든 것인데 여기에는 消渴의 一種인 消腎의 症勢에서 甘尿를 언급했다.

宣祖의 遺志를 받들어 光海君 5年(1613年)에 刊行된 東醫寶鑑은 우리나라의 가장 代表的인 古典醫書인데 그 著者인 許浚이 明初 까지의 中國醫書를 거의 涉獵한 後에 만든 것이다. 거기에는 消渴에 관한 記述이 鄉藥集成方에서 보다 훨씬 더 仔細하며 또 糖尿病에 가까운 것

이 事實이다. 따라서 標題의 研究를 위하여는 東醫寶鑑의 消渴에 관한 記載에 依據함이 妥當 할 것으로 思料되었다. 著者는 앞으로 東醫寶鑑에 記載된 消渴論을 中心으로 우리나라 古典醫學의 糖尿病에 관한 知識을 現代醫學의 位置에서 이를 檢討하며 批判 하고자 한다.

本研究에 使用한 東醫寶鑑은 우리나라 原典(1613年)을 1723年(日本 享保癸卯正月1日)에 日本서 刻本한 것을 1890年(中國 光緒10年正月)에 中國서 複刻 한 것이다.

### 2. 歷史的 考察

糖尿病에 비슷한 증상을 기록한 文獻으로서는 紀元前 1500年頃에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Papyrus Ebers가 가장 오랜 것 같다. 이것은 現存하는 最古醫學文獻中の 하나에 屬하는데 1890年에 Joachim이 그 內容을 完全히 解讀함으로써 비로소 그 속에 多尿에 대한 處方이 기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古代 에집트의 醫師들이 糖尿病을 두고 記錄한 것 같다<sup>3)</sup>.

Galen(129~200 A.D.)과 같은 時代의 사람으로 推測되어지는 Aretaeus the Cappadocian은 아래와 같이 糖尿病에 가장 가까운 기록을 남긴 最初의 사람으로 인정된다. “몸체와 팔다리가 녹아내려 소변으로 변하는 놀라운 질병은 흔하지 않으나 그 잠복기간이 길며 일단 發病하면 患者의 수명은 길지 못하다.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갈증으로 물을 안 마실수 없게되는 동시에 尿量의 증가 또한 막을 길이 없다. 만약 잠시나마 물을 안 마시던 심한 口渴과 구토와 不安感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sup>4)</su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etaeus는 疲勞, 口渴, 多尿, 瘦瘠, 不安等 糖尿病에 따른 여러가지 증상을 예리하게 관찰 했다.

中國 最初의 醫書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內經에서는 肺消, 消癰 或은 消渴이라는 病名을 찾아 볼수 있는데 渴症이 심해서 물을 마시면 마신 물의 量보다 두배나 더 많이 배설 하게 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治療할 수 없이 결국 죽게 된다 하고 이는 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는 疾病인데 동시에 몸이 여위고 갈증이 심하다는 것을 기록했다<sup>5)</sup>.

後漢(25~220 A.D.)의 張仲景(d. 195 A.D.)은 男子의 消渴은 小便이 많은데 물 한피를 마시면 小便 한피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 치료제로는 腎氣丸이 좋다고 했다<sup>6)</sup>.

晉(265~416 A.D.)의 王叔和는 입이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위지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病이 消中이라 했다<sup>7)</sup>.

印度의 Susruta(約 500 A.D.)는 갈증, 無氣力, 口臭 등의 증상 이외에 달콤한 오줌(honey urine, 糖尿)이 나오는 病에 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糖尿病 患者의 尿가 甘味롭다는 사실을 발견한 最初의 영광을 차지 하였다<sup>8)</sup>.

唐(618~907 A.D.)의 孫思邈(d. 651)는 消渴患者가 삼가야 할 것이 세가지 있는데 즉 飲酒, 房室, 鹹食 및 麪이라 했다. 또 消渴이 완쾌되기 前에 癰(furuncle)이 骨節 사이에 자주 發生 함을 지적했는데 糖尿病의 합병증을 관찰한 것으로 生覺된다<sup>9)</sup>.

金(1115~1234)의 劉完素(12世紀)는 消渴을 세가지로 分類하여 각기 조금씩 다른 증상을 기록했는데 곧 上消, 中消, 腎消가 그 것이다.

多飲과 多尿가 主症勢이면 上消(또는 消渴)이라 하며, 飲食을 많이 먹으나 饑餓感이 심하며 尿數의 增加와 漸進的인 體重減少를 초래하는 것을 中消(또는 消中)이라 하고, 갈증으로 끊임 없이 물을 마시게 되며 쇠약해지고 그 小便에 脂液이 있을 때는 腎消(또는 消腎)이라 했다<sup>10)</sup>.

이러한 三消論은 金, 元(1206~1368)의 醫人들이 즐겨 하는 바 되어 여기에 여러가지 理論을 첨가 하였음으로써 서로 모순 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鄉藥集成方(1433年) 역시 宋(960~1279)의 聖惠方을 引用하여 三消論을 展開 했는데 多飲하지만 小便이 적은 것을 消渴이라 하고, 多食 小飲 小便小 및 赤黃尿의 증세를 消中이라 하고, 尿味가 달고 白濁이며 수척해 지는 것을 消腎이라 했다<sup>11)</sup>.

16世紀에 와서 Paracelsus(1493~1541)는 體內的 鹽分代謝 異常이 이 病의 原因이 된다고 하여 그가 말한 「鹽」을 「糖」으로 代置시켜 놓는다면 놀라운 정도의 現代的인 記述이 될 수도 있는 糖尿病論을 展開하고 그 증상으로서 만성적인 갈증과 背痛, 兩脚의 浮腫, 黃赤色尿, 速脈 등을 列擧했다<sup>12)</sup>.

17世紀 英國의 代表的인 醫化學者인 Thomas Willis(1621~1675)는 糖尿病에 있어서는 그 尿味가 “마치 사탕이나 꿀을 탄 것”처럼 달다는 것을 1670년에 발견 하였다. 西洋에서는 이때 부터 眞性糖尿病과 尿崩症의 差別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679년에 出版된 그의 著書에는 糖尿病의 原因을 비롯하여 그 증상, 치료, 예

후에 이르기 까지 매우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sup>13)</sup>.

英國의 Yorkshire 에 태어난 Matthew Dobson(d. 1784)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糖尿病 患者 아홉 사람의 尿를 檢査했는데 정도의 差는 있지만 모두가 달다는 것을 確認하고 이 尿를 끓이기도 하고 또 증발 시키기도 한 끝에 糖의 存在를 증명 해 냄으로써 糖尿病 患者의 尿가 단 것은 그 속에 糖分이 들어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sup>14)</sup>.

이어서 Lancereaux(1829~1910)는 糖尿病이 腺臟과 더부러 관련이 있음을 1877년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Mering(1849~1908)과 Minkowski(1858~1931)는 개의 腺臟을 切除해 냄으로써 糖尿病의 증상을 야기시키는 實驗에 成功 하였다.

Minkowski 는 이미 1884년에 acidotic urine 을 研究했고, Mering 은 1886년에 phlorhizin 으로 糖尿를 산출 시켰다<sup>15)</sup>.

Eugene Opie(b. 1873)는 糖尿病으로 죽은 아이의 腺臟을 組織學的으로 研究하다가 Langerhans 島가 심한 病變을 일으켰음을 발견하고 사람에 있어서도 腺臟과 糖尿病이 서로 關係가 있음을 확인했다<sup>16)</sup>.

W.G. MacCallum 은 1909년에 導管을 결찰함으로써 Langerhans 島를 除外한 모든 腺臟을 파괴 시켰을 때는 糖尿病이 發生하지 않았으나 Langerhans 島까지 파괴 시켰을 때는 糖尿病이 發病했음을 밝혔다<sup>17)</sup>.

이러한 관찰들은 英國의 生理學者인 Edward Schaefer(1805~1935)로 하여금 Langerhans 島 세포는 糖代謝를 조절하는 어떤 內分泌物質을 產出하고 있는데 이 物質의 결핍으로 糖尿病이 야기 된다는 說을 1916년에 發表케 했다.

F.G. Banting(1892~1944)은 Schaefer 가 주장한 물질을 검출해 내는 문제에 열중하여 마침내 糖尿病으로 거의 죽어가던 개가 腺臟에서 추출해 낸 물질을 供給받게되자 두時間 以內에 그 血糖이 卽시로 떨어지게 되는 實驗을 성취했다. Banting 은 처음에 이 物質을 isletin 이라 부르도록 提議 했으나 MacLeod(1866~1935)의 의견대로 insulin 이라 命名하는데 동의했다.

Insulin 의 發見은 糖尿病 치료에 획기적인 轉機를 가져 왔음으로써 Banting 과 MacLeod 는 1923年度 Nobel 賞을 받았다<sup>18)</sup>.

最近에는 Houssay (b. 1887), Long(b. 1901), Lukens (b. 1899)등에 依하여 腦下垂體와 副腎이 insulin 分泌를 지배 한다는 것을 발견하여<sup>19)</sup> 糖尿病의 原因을 새로운 각도에서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Sulfonylurea 劑를 비롯한 여러가지 內服藥劑가 등장 하고 있다<sup>20)</sup>.

### 3. 東醫寶鑑에 記載된 糖尿病論

東醫寶鑑 雜病篇 卷六에 消渴論이 있다. 여기에는 먼저

消渴의 原因을 밝히는 「消渴之源」과 症勢를 記한 「消渴形證」이 있고, 消渴을 分類한 「消渴有三」과 거기에 따른 처방이 있다.

本卷에는 또한 尿味가 달다는 것을 論한 「消渴小便甜」과 「消渴通治藥」으로 「滋陰養榮湯」以外에 열여덟개의 처방이 나열되어 있으며 糖尿病의 合併症에 해당되는 「消渴傳變證」에는 癰疽 및 水病의 發生과 失明에 이르게 되는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治療法이 있고, 癰疽를 예방하기 위한 처방도 있다.

끝으로 消渴에 있어서의 「不治證」과 「禁忌法」이 있고 單一 藥劑로 消渴을 治療하는 「單方」이 40種이나 나열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脈法」「食飢證」「消渴由坎火衰少」「消渴與脚氣相反」等에 관한 것과 「酒渴」「蟲渴」「強中證」等에 대한 설명과 治療법이 삽입되어 있는데 後者는 糖尿病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제 消渴의 原因과 症勢, 治療의 順으로 東醫寶鑑에 記載된 바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因(消渴之源)

內經에 두陽이 맺힘을 消라 했다. 註에 두 陽이 맺인 다함은 胃와 大腸에 熱이 함께 맺힘을 말하는데 腸과 胃가 熱을 지니고 있으니 水穀을 즐겨서 消化시킨다.

手陽明 大腸은 津液을 만드는 일을 주로 맡아 보는 곳인데 病으로 熱이 오를때 눈이 노랗게 되고 입이 마르게 되는 원인은 津液 不足에 있다.

足陽明 胃는 血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곳으로 病으로 熱이 오를때 食物을 消化하여 飢感을 심하게 하며 血속에 火가 숨어 있게 하는데 그 原因은 血不足에 있다.

結(맺힘)은 津液이 不足한 탓이며 맺혀서 不潤하면 모두 燥熱케 되는데 病이다(東垣).

消는 燒이며 마치 불로 物質을 굽고 태우는 理致와 같다(入門).

心이 寒을 肺에다 옮기면 肺消가 되고 肺消는 하나를 마시면 물을 배설하는데 고치지 못하며 죽는다. 註에 金은 火邪를 받아 肺藏이 燥氣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됨으로 하나를 마시면 물을 배설한다(內經).

心이 熱을 肺에다 옮기면 膈消가 된다. 註에 心, 肺 사이에 斜膈膜이 있고 隔膜의 下部內方이 橫膈膜에 連接되어 있음으로 心熱이 肺로 들어가 오래되면 傳化되어 속으로 膈熱이 된다. 따라서 消渴이 되고 多飢이 된다(內經).

癰이 成하여 消中이 된다. 註에 癰은 消熱病인데 많이 마시고 자주 배설하는 것을 熱中이라 하고 많이 먹고 자주 배설 하는 것을 消中이라 한다(內經).

무릇 消癰이란 肥貴人에게 있는 腎梁의 疾이다. 이러한 사람은 甘味한 것을 자주 먹어 多肥한 때문에 그 氣가 위로 넘쳐 消渴로 바뀐다. 註에 기름진 것을 먹으

면 膠理가 뻣뻣해져 陽氣가 밖으로 배설 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肥가 사람의 內部를 熱하게 하고 甘은 氣를 따뜻하게 하고 發散케 한다. 그렇지 못하면 甘이 사람의 속을 딱 차게 하여 內熱 즉 陽氣가 위로 타올라 물을 마시고 싶어지며 목구멍이 마른다. 속이 딱차는 것은 陽氣가 남아도는 것이고 이것은 脾氣가 위로 넘치기 때문인데 곧 消渴로 바뀐다(內經).

자주 渴하게 됨은 心熱 때문이다. 心은 便과 汗을 주관 하는데 便과 汗이 많아 지며는 腎의 內部가 虛하고 燥하게 되기 때문에 渴하게 된다.

여름엔 渴하고 땀이 많이 나오는 까닭에 小便은 적고 겨울엔 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小便이 많은 것은 모두 보통 사람에게서 보는 바이다(聖惠).

2. 症狀(消渴形證 附消渴有三, 食飢證, 消渴小便甜)

渴病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곧 消渴과 消中과 消腎이다.

熱氣가 上部로 올라가 心이 虛한데 이것을 받으면 心火가 散漫하여지고 收斂이 不可能 함으로 가슴이 답답하여 지고 혀가 붉게 되며 입술이 빨강게 된다. 이 渴에는 보통 많이 마시며 小便을 자주 보게 되나 量이 적은데 이러한 病은 上焦에 屬하며 消渴이라 한다.

熱이 中部에 쌓여 脾가 虛한데 이것을 받으면 胃에 있는 陽이 쪼개 됨으로 잘 消化시켜 飢感이 잦고 食物을 씹나 먹어도 항상 살이 찌지 아니 하는데 이에 甚한 渴症이 없으나 小便은 자주 보게되며 그 맛이 달다. 이러한 病은 中焦에 屬하며 消中이라 한다.

熱이 下部에 숨어 있어 腎이 虛한데 이것을 받으면 넓적다리(腿)와 무릎(膝)이 말라 가늘게 되고 骨節이 아프며 精이 固定되지 않아 骨髓가 虛한데 水를 끌어당겨 스스로를 救한다. 飲水로서 이에 充分히 應隨치 않음으로 小便은 많고 濁하다. 이 病은 下焦에 屬하며 消腎이라 한다.

消腎으로 부터 分析하면 또 五石을 過하게 복용한 사람은 眞氣가 이미 없고 石勢만이 陽道에 남아 強하게 되어 性交 없이 精液을 배설하는데 이를 強中이라 한다. 消渴은 輕하며 消中은 甚하며 消腎은 더욱 甚하다. 만약 強中이면 죽음은 두말 할것 없다(徵指).

上消는 肺이며 또 膈消라고도 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나 적게 먹으며 大便은 보통이고 小便은 맑다.

中消는 胃이며 渴하고 많이 마시고 먹는데 小便은 赤黃이다.

下消는 腎이다. 小便은 濁해서 膏油와 같다. 얼굴은 검고 귀바위가 말려들어 외모가 어위게 보인다(易老).

渴하고 많이 마시면 上消이고, 食物을 消化시켜 飢感이 잦으면 中消가 되고, 渴하고 오줌이 자주 나오며 膏油 같은 것이 있으면 下消이다(類田).

五臟六府는 모다 津液을 가지고 있는데 熱氣가 內部에 있으면 津液이 말라 적어지기 때문에 渴하게 된다.

무릇 渴한 者는 물을 자주 마시며 그의 頭目이 반듯이 어지럽고 등이 차며 嘔逆이 나는데 이것은 모두 內部가 虛하기 때문이다(類聚).

물을 마신 뒤 편히 잠자는 者는 實熱이고 조금 기우려도 곧 만하는 者는 火邪 때문인데 假渴이다(入門).

**消渴有三**

上消者는 舌上이 赤裂하고 大渴하여 마시기를 원하는 데 이것이 膈消이다. 白虎加人參湯 즉 人參白虎湯이 있는데 이것은 먹을 수 있으면서 渴한 者를 治療하며, 만약 먹을 수 없으면서 渴한 者에게는 마땅히 加味錢氏白朮散을 준다. 또 麥門多飲者, 降心湯, 人參石膏湯, 清心蓮子飲, 和血益氣湯, 生津養血湯, 黃芩湯 등이 上消를 治療한다.

中消者는 잘 먹으나 수척해지며 스스로 땀이 나고 大便이 硬하며 小便이 자주 나오는데 所謂 瘕이 成한 것으로 이것이 消中이다. 調胃承氣湯, 加減三黃丸이 주로 사용된다. 또 蘭香飲子, 生津甘露湯, 順氣散, 人參散, 黃連豬肚丸, 藕汁膏가 모두 쓸만 하다.

下消者는 煩燥하여 마시고 싶어하며 귀바퀴가 마르고 小便은 腎과 같고 넓적다리와 무릎이 말라 가늘게 되며 소위 焦煩하여 水分이 不足되기 쉽다는 것이 이것이다. 六味地黃丸을 주로 쓰나 人參茯苓散, 加減八味丸, 加減腎氣丸, 補腎地黃丸, 鹿茸丸도 좋다.

養肺하여 降火시킴은 血을 생케 함을 주로 하는데 上中, 下로 나누어 고친다(丹心).

三消는 모두 血이 虛하여 津液이 나지 않는데 屬하며 四物湯으로써 주로 고친다. 上消에는 人參, 五味子, 麥門多, 天花粉을 加하고 牛乳汁, 生地黃汁, 生藕汁을 넣이 다린다. 酒客에겐 生葛根汁을 만들어 服用케 한다.

中消에는 知母, 石膏, 寒水石, 滑石을 加한다.

下消에는 黃芩, 知母, 熟地黃, 五味子를 加한다(丹心).

消渴病엔 小便이 反對로 많아 물 1斗를 마시면 小便역시 1斗 됨과 같은데 腎氣丸이 주로 잘 듣는다(仲景).

**食飭證**

內經에 말하기를 大腸이 熱을 胃에 옮기면 잘 먹음에도 여위는데 이를 食飭이라 했다.

胃가 熱을 膈에 옮기면 역시 食飭이라 했는데 註에 飭은 易이라 했다. 먹고 마시되 옮겨 바뀐이 지나치면 살(근육)이 붙지 않는다. 治法은 消中과 같다(綱目).

**消渴小便甜**

消渴이란 腎이 虛하기 때문인데 發生하면 小便이 반듯이 달콤하다. 物理로써 推測컨대 錫醋酒로 肺를 만드는 法과 같이 須臾하여 달다.

만약 腰腎氣가 盛하여 上部를 찌고 태우면 氣는 化하여 精이 되고 또 氣는 내려와 骨髓에 들어 가고 그 다음엔 脂膏가 되고 또 그 다음엔 血肉이 되고 그 나머지가 즉 小便이 되기 때문에 小便色이 노랗게 되는데 血

液의 나머지이다. 五臟의 氣가 鹹潤한 者는 즉 下味이다. 만약 腰腎氣가 이미 虛하여 차게 된즉 穀(食物)을 蒸化 할 수 없고 氣는 다하여 내려와 小便이 되기 때문에 맛이 달고 색이 變치 않고 淸冷한즉 피부와 근육이 마르게 된다(本事).

**3. 治療(通治藥 附消渴傳變證, 禁忌法)**

아래에 記한 것은 消渴, 消中 및 消腎에 各各 特效라는 處方들 中에서 하나씩과 消渴通治藥(三消에 對한 通治藥)에서 하나를 든 것이다.

**加味錢氏白朮散**

治消渴 不能食 又 治 消中善飢.

乾葛 二錢, 人參 白朮 白茯苓 藿香 甘草 各一錢, 木香 柴胡 枳殼 五味子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得效).

**生津甘露湯**

治 消中, 먹을 수 있으나 쇠약하며 大便은 燥하고 小便이 자주 나오는데效.

石膏 草龍膽 黃芩 各一錢, 柴胡 羌活 黃芪 酒知母 酒黃芩 炙甘草 各 八分, 當歸身六分, 升麻四分, 防風 防己 生地黃 生甘草 各三分, 杏仁 十箇, 桃仁 五箇, 紅花少許, 右剉作一貼, 水二盞, 煎至一盞, 加酒一匙, 稍熱服不拘時(東垣).

**人參茯苓散**

治腎消, 尿濁如膏.

滑石 寒水石 各一錢半, 甘草七分, 赤茯苓 乾葛 黃芩 薔荷 大黃 各 五分, 連翹三分, 人參 白朮 澤瀉 桔梗 梔子 天花粉 縮砂 各二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滋陰養榮湯**

消渴, 津液不足 口燥 咽乾을 治함.

當歸二錢, 人參 生地黃 各一錢半, 麥門多 白芍藥 知母 黃芩 密水炒 各一錢, 甘草 五分, 五味子 十五粒, 右剉作一貼 水煎服(入門).

**消渴傳變證(合併症)**

消渴의 疾에 있어 未傳 能食者에게는 반듯이 腦疽, 背瘡이 발하고, 不能食者에겐 반듯이 中滿, 鼓脹이 傳하는데 이 모두 不治의 證이다. 張潔古老人은 나누어 治療했는데, 能食而渴者는 白虎加人參湯을 主劑로 하여 때로는 加減白虎湯을 使用하고, 不飲食而渴者는 錢氏白朮散과 倍加葛根을 주고 或 加減白朮散을 주었다. 上中消가 이미 平安하고 下消는 다시 傳하지 않는다.

未傳癰疽이란 무엇인고 하면 火邪가 이기는 것으로 그 瘡痛이 甚하나 不潰하며 水가 赤한 것이다. 未傳中滿이란 무엇인고 하면 上消 中消와 같이 太急히 制해야 되는 것으로 寒藥이 胃를 오래동안 傷하게 하여 中滿을 일으킨 병이다. 소위 上熱이 未除하고, 中寒이 復生한 것이다(東垣).

消渴이 오래되면 變하여 癰疽를 發하게 하며 때로는 水病과 때로는 雙目失明이 되게 한다(類聚).

消渴이 甚해져 水氣가 浸漬하여 肌에 溢한즉 膚가 脹하여 腫滿하고, 猛火가 스스로 타올라 分肉에 있는 瘰癧瘡가 發한다. 이것은 病之深이고 證之變者이다.

渴利란 隨飲한즉 小便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腎氣가 虛하여 水液을 制할 수 없기 때문에 隨飲한즉 小便이 나오게 된다. 小便이 利한즉 津液이 渴하고, 津液이 渴한 즉 經絡이 澁하며, 經絡이 澁한 즉 榮衛가 不行이고, 榮衛가 不行인즉 熱氣가 留滯하여 癰疽를 이룬다(聖惠).

消渴이 있는 사람은 항상 大難이 骨節사이에 갑자기 發하는 것을 戒정해야 한다. 癰疽가 發하면 곧 豫防 해야 한다.

#### 禁忌法

內經에 熱中 消中엔 膏粱 芳草 石藥을 服함이 不可하다고 말했다.

消渴病엔 마땅히 삼가야 할 것이 셋 있는데 곧 飲酒, 房勞, 鹹食 및 麪이다. 이 셋을 能히 삼가는 이는 비록 藥을 服치 아니해도 스스로 치유 될 수 있다(千金).

무릇 消渴에는 飲酒와 房事 그리고 灸燔, 辛熱 鹹藏之物을 먹는 것 등을 크게 忌한다.

百日 以上 鍼灸함은 不可하다. 鍼灸한즉 瘡中에서 膿水가 나오는데 不止하면 죽는다(得效).

渴疾에는 半夏, 南星, 燥劑를 크게 忌한다(東垣).

#### 4. 考按 및 總括

여기에서 말하는 消渴之源이 반드시 糖尿病의 原因에 해당 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糖尿病의 主症狀인 口渴 多尿 多飲 多食 疲勞感 등에 關하여 그 根源을 論하고 했음을 짐작 할수있다.

즉 大腸과 腎에 있는 두가지 陽이 結合 됨으로써 생긴 熱이 津液을 대워 不足케 하기 때문에 口乾이 온다든가, 心熱이 肺로 들어가 오래되면 마침내 渴하게 되고 多飲케 된다고 한것과, 陽氣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體內에 머물게 되면 역시 渴하게 된다고 한 것은 口渴의 主要原因을 熱 或은 陽氣過多로 因한 體液不足에서 찾아려고 한 것 같다.

이것은 過血糖이 있을때 細胞外液의 滲透壓 上昇으로 因해 細胞內 水分이 추출되며 또 이때 尿細管의 포도당 再吸收能이 制限됨으로서 오는 糖尿가 많은 물기를 동반 하지 않을 수 없어 水分不足이 생기기 때문에 口渴이 오고 또 多量의 水分을 取하게 된다는 科學的인 見解에 비추어 보면 매우 初步的인 生覺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原因을 說明함에 있어 거의 內經의 것을 引用 했으며 許浚 自身の 獨創的인 見解라곤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점은 原因의 見解가 유치한 程度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要因이라 본다.

또 消渴을 셋으로 分類하여 各各 조금씩 다른 증상을 첨가한 것은 11世紀 以後 中國의 傳統的인 消渴論을 그

대로 따온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糖尿病의 輕重과 進行에 따라 다른 症狀이 더 첨가 되었다고 봄이 옳겠다. 이제 東醫寶鑑에 記載된 三消의 증상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上消의 증상은

- 1) 가슴이 답답하다
- 2) 혀와 입술이 붉다
- 3) 많이 마시고 적게 먹는다
- 4) 맑은 尿가 자주 나오나 量은 적다 等이고

中消의 증상으로는

- 1) 多飲多食 하나 배가 자주 고프고 살이 찌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윈다
- 2) 몸씨 답답 하지는 않다
- 3) 赤黃色의 尿가 자주 나오며 그 맛이 달다
- 4) 便秘와
- 5) 自汗이 온다 等이며

下消의 증상으로는

- 1) 下肢의 쇠약과 關節痛이 있다
- 2) 膏油와 같이 濁한 多尿가 있다
- 3) 얼굴色이 검게 되고 쇠약해 진다
- 4) 갈증이 있다 등이 열거 되어있다.

이러한 三消論은 鄉藥集成方에 있는 것과 거의 같다. 다만 鄉藥集成方에서는 消腎(下消)에서 尿味가 달다 하고 東醫寶鑑에서는 中消에서 尿味가 달다고 한 것이 다르게 生覺 될지 모르겠으나 糖尿의 排泄時期는 一定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다.

韓國人의 糖尿病 患者에 있어 初診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자각적 증세들을 金應振은 갈증 63.7%, 多尿 50.5%, 권태감 42.3%, 體重減少 40.1%, 多食 37.4%라 보고 했는데, 이어서 그는 신경통, 쇠약감, 두통, 성욕감퇴, 시력장애, 빈뇨, 사지통, 어지러움증, 사지궤냉 등의 증세를 호소한 患者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sup>21)</sup>.

이에 비추어 보아 東醫寶鑑의 消渴에 열거된 여러 증상은 비교적 세밀한 관찰의 소산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이것은 上中下消의 증상을 통틀어 消渴의 증상이라 크게 보았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三者를 각각 분리 시켰을 때는 上消를 糖尿病의 初期症狀이라 하고, 中消를 中等期症狀, 下消를 重態期症狀이라 볼 수 있다.

특히 下消의 症狀으로 膏油와 같이 濁한 多尿가 나옴을 지적한 것은 糖尿病의 合併症으로 nephropathy 때의 症狀임을 모르고 있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나, 反面에 그들의 관찰이 예리 했음도 보여준다.

糖尿病은 感染에 對한 全身의 저항을 弱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가지 感染症과 그 밖의 合併症을 同伴하기 쉽다. 따라서 糖尿病에 있어 여러가 지合併症의 문제는 糖尿病 자체보다 더 重要視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重要的 合併症으로서는 폐결핵, 고혈압, 망막장애, 신장장애, 신경장애, 피부질환 등을 들 수 있

고, 齒齦出血과 齒牙脫落이 왕왕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이와 같은 合併症의 문제를 「消渴傳變證」에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合併症으로 癰疽 및 背瘡, 失明, 中滿, 鼓脹 등을 열거했다.

Joslin 은 糖尿病 患者의 31%가 피부 증세를 나타내며<sup>22)</sup>, 도상히는 38%에서 糖尿病성 망막증을<sup>23)</sup>, 楠, 平田는 3%가 백내장을 나타냄을 보고 하였는데<sup>24)</sup>, 망막증과 백내장이 失明을 초래 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관찰이 정확 하였음을 알수있다. 여러가지 合併症 가운데에서 癰疽나 失明등을 지적한 것은 아직 理化學的 檢査를 알지못하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눈에 잘 띄이는 外面的인 合併症만을 관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거기에 記載된 處方으로 과연 糖尿病을 치료할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加味錢氏白朮散에 들어 있는 生藥中 人蔘<sup>25)</sup>에는 人工的 血糖 및 尿糖을 抑制하는 作用이 있고 生津甘露湯의 黃柏은 Obakulacton(C<sub>26</sub>H<sub>30</sub>O<sub>8</sub>)을 함유하고 있어 이것을 경구적으로 투여하거나 注射하면 토끼의 血糖量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sup>26)</sup>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許浚은 內經의 말을 引用하여 「飲一溲二」의 증세를 보이면 고치지 못한다는 것과 癰疽와 不交精泄를 수반 하는 消渴은 모두 不治라는 綱目的 한 句節을 引用하여 「不治證」의 項目을 설정 하였음에 비추어 不治의 경우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 하였다.

「禁忌法」의 項에서는 膏粱, 芳草, 石藥 등을 먹어서는 안된다는(內經) 것과 消渴病에는 마땅히 飲酒, 房勞, 鹹食 및 麪을 삼가 할 것(千金方)과 半夏, 南星, 燥劑 등을 피함이 좋다는(東垣) 것을 말 하고 있다.

오늘날 糖尿病의 예방에 肥滿 즉 體重增加를 피하는 동시에 糖의 섭취를 제한 하고, 이미 糖尿病에 걸린 患者에게는 될 수 있는대로 肉體의 으로나 精神的인 安定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생각할때 기름진 음식(膏粱)과 體重증가를 초래하는 補藥(芳草)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흥분과 피로를 가져오기 마련인 음주나 房勞(성교) 등을 삼가게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다. 더구나 그들이 糖尿病의 合併症으로 高血壓이 發生함을 알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鹹食을 삼가게 한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 5. 結 論

1. 消渴의 主症狀인 渴症의 原因을 熱 또는 陽氣過多로 인한 體液不足에서 찾으려고 했다.
2. 消渴은 오늘날의 糖尿病과 그 症狀에 있어 매우 비슷한 點이 많다.
3. 特히 尿의 甘味를 認知한 것은 尿檢査를 診斷에 活用한 느낌을 주는 흥미 있는 사실이다.

4. 合併症에 있어 癰疽, 失明 등을 열거 한 것은 注目 할 만 하다.

5. 消渴의 治療에 單方 複方 등 수 많은 처방이 열거 되어 있으나 그 藥草의 藥理作用이 규명 되지 않은 것이 많음으로 앞날의 研究에 기대 한다.

끝으로 이 論文을 만듦에 있어 많은 敎示를 해 주신 本大學 內科學 敎室 金應振 康晰榮 두 敎授께와 原稿整理等 이리가지로 수고한 崔鎭煥 碩士에게 感謝하는 바이다.

### Abstract

## Medico-Historical Study on Diabetes Mellitus

—Based Particularly on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s on Medicine—

Yung Taik Lee, M.D.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author has made a review as to the improvement of the knowledge on Diabetes Mellitus based on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s on medicine.

Hyang-Yak-Ku-Kub-Bang(鄉藥救急方), the oldest medical book published in 13th century (the reign of King Kojong of Koryu Dynasty), shows, as the symptoms of So-Kal(消渴, thirsty sensation) polyuria and decrease of body weight.

In Hyang-Yak-Chib-Sung-Bang(鄉藥集成方), published in 1433(the reign of King Sejong of Lee Dynasty) is added sweetness of urine to the above-mentioned symptoms of So-Kal.

But, in Tong-Ui-Bo-Kam(東醫寶鑑), the most outstanding medical book in Korean classical medicine published in 1613 (the reign of King Kwanghai of Lee Dynasty), the descriptions on the symptoms of So-Kal are far more close to those of Diabetes Mellitus of modern medicine, compared with the descriptions in Hyang-Yak-Ku-Kub-Bang and Hyang-Yak-Chib-Sung-Bang.

The author, for this reason, chose Tong-Ui-Bo-Kam to look into the knowledge on Diabetes Mellitus that bears Korean classical medicine and to make a critique on it in the view point of modern medicine.

The conclusions thus obtained are as following.

- 1) The etiology of So-Kal that thirsty is attributed to heat and excess of positive spirit is but a very primitive one.
- 3) So-Kal bears much resemblance in its symptoms

with those of Diabetes Mellitus.

- 3) The fact that they recognized sweet urine in So-Kal makes us feel if they used the urine test in the diagnosis.
- 4) It's remarkable that they indicated furuncle and loss of eyesight as the complications of So-Kal, though these are but a part of the whole complications of Diabetes Mellitus confirmed in modern medicine.
- 5) There are, for the treatment of So-Kal, many prescriptions enumerated, single or compound form. However, the author thinks that we have to expect for the further pharmacological researches on the medicinal plants included therein before we can tell their efficiency.

#### REFERENCES

- 1) 三木榮：朝鮮醫書誌，第1部，7페이지，大阪，1956.
- 2) 三木榮：朝鮮疾病史，第3章，第7節，第1項，252페이지，大阪，1955.
- 3), 4) Major, Ralph H.: *Classic Descriptions of Disease, chapter II, 235pp., 3rd ed., Springfield, 1948.*
- 5) 黃帝素問，氣厥論：心移寒於肺，則肺消，肺消者，飲一澆二，死不活。
- 6) 張仲景，金匱要略：男子消渴小便反多，以飲一斗，小便一斗，腎氣丸主之。
- 7) 王叔和，脈訣：脾脈實兼浮，澆中，脾胃虛，口乾，饒飲水，多食亦肌虛。
- 8) Garrison, F.H.: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edicine, chapter III, 63pp., 3rd ed., 1924.*
- 9) 孫思邈，千金方：消渴之人，愈與未愈，常須思慮有大

癰，何者，消渴之人，必於大骨節間發癰疽而卒，所以戒之在大癰也，當預備癰藥以防之。

- 10) 劉完素，六書：若飲水多而小便多者，名曰消渴；若飲食多而又甚饑，小便數而漸瘦者，名曰消中；若渴而飲水不絕，腿消瘦而小便有脂液者，名曰腎消。
- 11) 俞孝通外 2人，鄉藥集成方：飲水多而小便少者，消渴也；喫食多而飲水少，小便小而赤黃者，消中也；飲水隨飲，便下小便味甘而白濁，腰腿消瘦者，消腎也。
- 12) Major, Ralph H.: *Classic Descriptions of Disease, chapter II, 234pp., 3rd ed., Springfield, 1948.*
- 13) Castiglioni, Arturo: *A History of Medicine, chapter VII, 541pp., 2nd ed., 1947.*
- 14) Mettler, Cecilia C.: *History of Medicine, chapter 7, 404 pp., 1947.*
- 15) Ackerknecht, Erwin H.: *A Short History of Medicine, chapter 14, 160pp., New York, 1955.*
- 16), 17) Castiglioni, Arturo: *A History of Medicine, chapter XXI, 996pp., 2nd ed., 1947.*
- 18) Harris, Seale: *Banting's Miracle. Philadelphia, 1946.*
- 19) Cecil & Loeb: *Textbook of Medicine, 658pp., 9th ed., 1962.*
- 20) 李英澤，崔正奉：綜合醫學，第7卷 第5號，255 p., 1962.
- 21) 金應振外 6人：大韓內科學會雜誌，vol. 5, no. 5 26~27 PP., 1962.
- 22) Joslin E.P.: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10th ed., 1959.*
- 23) 도상희 : 최신의학, vol. 4, 341pp., 1961.
- 24) 楠，平田：糖尿病 第1版，1957.
- 25), 26) 刈米，木村：和漢藥用植物，151페이지 및 214페이지，4版，1954.